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303 E. Wacker Dr. • Suite 2020 • Chicago, IL 60601
Office (312) 334-0702 x702

Dan Schwerin
Bishop
dschwerin@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the Bishop
achristo@umcnic.org

2024 년 5 월 17 일

북일리노이 연회에 보내는 댄 쉐린 감독의 목회서신
"소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로마서 12:12)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께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회의 소식이 우리 연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여러분께 이 목회 서신을 보내 드립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앉아서 제 차례가 되어 헤어컷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지만, 헤어컷은 제 인생에서 아직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저의 총회 헤어컷이 될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읽으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과 부활절이 도대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마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질문한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속으로 수십 개의 종려주일 설교를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50 단어 이내로 부활절을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질문의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공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말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기쁨을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저는 복음이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연합감리교회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그동안 우리는 희년의 메시지가 아니라 전투의 메시지를, 또한, 은혜가 아니라 피해를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12 장 12 절은 "소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소망을 품고 살게 창조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범위한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격을 묻지 않고 모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입니다. 존 웨슬리는 은혜가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사역은 일상 생활에서 은혜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사역은 누구에게나, 누구로부터나 가능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총회에서의 결정 사항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가에 관해 성찰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성소수자들의 결혼과 안수에 관련된 금지 조항이 장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GBTQ+로 정체성을 밝힌 목사들은 이제 기소될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적 처벌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1972 년까지 연합감리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전신 교단에서 이런 조항들이 장정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결혼의 정의가 오늘날 사람들이 선택하는 여러 가족의 유형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 동의 가능한 연령에 이른 남성과 여성 혹은 두 성인의 결합임을 인정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 동성애 결혼을 주례한다는 이유로 목사 자격이 박탈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성정체성 때문에 목회의 소명을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목사는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할지 안할지 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체 교회의 재단이사회는 교회 건물에서 어떤 결혼을 주최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목사 파송은 항상 해왔던 방식대로 선교의 필요성과 그 필요에 맞는 재능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런 총회의 결정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히스패닉/라틴 X 공동체, 한인 교회 공동체, 혹은 신학적으로 전통주의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불편한 결정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입장에 계신 분들의 사역을 다 지원합니다. 경우에 따라 불이익이나 처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리를 들으셨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역할은 연회 전체의 사역을 돕고 강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본처 목사님들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법안들이 총회 회의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관해 실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북일리노이 연회에서의 저의 목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그룹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가 아직 부활의 희망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최근 총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umcnic.org 를 방문하여 보시면 됩니다.

총회 후에 제 마음에 가장 남아 있는 단어는 "치유"입니다. 저는 복음이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는 그동안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한 피해를 주는 메시지로부터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치유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들을 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총회가 인종차별이나 백인의 기독교 국가주의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희망은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고서야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해변에서 물고기 기적을 다시 경험하고 주님의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서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안에서,

댄 쉐린 감독
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 연회